

2015 / 12 / 21 (MON)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혼조세. 국제 유가 약세 지속되며 투심 위축됐으나 중국 경제공작회의 개막으로 경기부양 기대감 부각되며 낙폭 제한.

인터넷 업종이 1.2%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반면 소프트웨어 업종은 3.0% 상승 마감.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한글과컴퓨터, 더존비즈온, 아프리카TV, SK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NAVER 약세.

종목별로는 내년 1월 중국 시장에 웹오피스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한글과컴퓨터가 8.2% 상승 마감.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94.75	-0.9%	-13.3%	-590 억	324 억
(코) 인터넷	18,359.19	0.7%	-3.7%	11 억	19 억
(코) IT S/W&SVC	1,985.21	1.0%	-0.7%	-20 억	90 억
(코) 소프트웨어	292.85	2.1%	19.4%	-29 억	48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7.77	-1.8%	0.5%
MSCI Internet	192.34	-1.5%	25.9%
MSCI IT Services	120.77	-2.0%	2.6%
MSCI Software	177.79	-2.0%	8.7%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40,000	-2.0%	-10.1%	-42 억	63 억
카카오	112,100	0.6%	-9.3%	8 억	17 억
한국사이버결제	25,900	1.0%	-3.0%	3 억	8 억
KG이니시스	16,000	0.6%	-10.6%	-9 억	10 억
KG모빌리언스	13,850	1.1%	-4.8%	1 억	-1 억
사람인에이치알	21,150	1.7%	88.8%	0 억	2 억
KTH	8,500	0.0%	11.1%	0 억	0 억
아프리카TV	27,300	3.0%	2.1%	4 억	13 억
SK컴즈	4,400	0.7%	-33.8%	1 억	0 억
KT뮤직	4,575	1.3%	-15.1%	1 억	0 억
다날	8,760	0.2%	8.1%	0 억	-
에스24	9,210	2.3%	32.1%	0 억	1 억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56.85	-1.7%	42.6%
Facebook	104.04	-2.1%	33.4%
Tencent	151.30	-0.2%	34.5%
Baidu	191.92	-2.5%	-15.8%
Yahoo	32.95	-0.8%	-34.8%
LinkedIn	225.80	-2.3%	-1.7%
Twitter	22.99	-1.4%	-35.9%
Weibo	19.32	-2.5%	35.7%
SINA	49.75	1.1%	33.0%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7,500	-1.7%	-12.3%	33 억	-17 억
SK	261,500	1.9%	22.5%	49 억	12 억
다우기술	20,800	0.5%	74.1%	-5 억	8 억
포스코 ICT	4,965	0.0%	-6.3%	3 억	0 억
신세계 I&C	94,000	0.4%	-16.1%	1 억	-3 억
동부	5,200	6.8%	107.2%	0 억	0 억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34.90	-1.4%	-15.9%
TCS	2,416.80	-0.9%	-5.5%
Accenture	101.93	-1.3%	14.1%
HP	11.51	-3.3%	-71.3%
Infosys	1,083.15	-2.2%	9.8%
Wipro	554.20	-0.3%	-0.2%
NTT Data	5,960	-1.7%	32.0%
Fujitsu	624.10	-4.1%	-3.1%
CSC	31.51	0.4%	-50.0%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SK	49 억	NAVER	-42 억
삼성에스디에	33 억	엔씨소프트	-32 억
NHN엔터	16 억	안랩	-30 억
카카오	8 억	게임빌	-13 억
조이시티	6 억	웹젠	-11 억
한글과컴퓨터	5 억	KG이니시스	-9 억
아프리카TV	4 억	코나아이	-7 억
유비벨록스	4 억	한국정보인증	-6 억
한국사이버결	3 억	다우기술	-5 억
네오위즈게임	3 억	필링스	-3 억
컴투스	3 억	이상네트웍스	-2 억
위메이드	3 억	한국전자인증	-2 억
오픈베이스	3 억	바른손이앤에	-2 억
포스코 ICT	3 억	에스넷	-1 억
처음앤씨	2 억	민앤지	-1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15,500	-2.3%	18.4%	-32 억	18 억
컴투스	114,400	-0.3%	-5.1%	3 억	4 억
NHN엔터테인먼트	56,100	1.4%	-33.7%	16 억	3 억
웹젠	22,250	-0.9%	-23.4%	-11 억	0 억
위메이드	34,700	-0.3%	-8.2%	3 억	0 억
선데이토즈	11,400	-0.4%	-33.7%	0 억	-5 억
액토즈소프트	30,450	0.2%	-9.1%	1 억	-1 억
게임빌	75,300	1.5%	-37.6%	-13 억	26 억
네오위즈게임즈	15,200	1.0%	-33.2%	3 억	-3 억
넥슨지티	11,700	1.7%	-8.2%	0 억	1 억
데브시스템즈	28,200	1.3%	-40.9%	0 억	0 억
조이시티	29,750	1.2%	47.3%	6 억	1 억
파티게임즈	12,550	-1.2%	-51.8%	1 억	-
조이맥스	13,700	0.0%	-49.8%	0 억	-
한빛소프트	7,110	0.9%	22.8%	0 억	-
와이디온라인	6,660	1.7%	44.2%	0 억	-

Games

close	1D	YTD	
Nintendo	16,775	-2.3%	33.1%
EA	68.98	-3.0%	46.7%
Blizzard	38.47	-1.0%	90.9%
NEXON	1,998	-2.3%	77.6%
NAMCO	2,656	-2.0%	3.6%
King	17.92	0.2%	16.7%
Konami	3,030	0.0%	36.5%
Square Enix	2,967	-2.2%	18.3%
GungHo	352	-3.0%	-20.2%
DeNA	1,911	-1.9%	32.2%
Sega	1,161	-2.2%	-25.4%
Take-Two	34.76	-3.0%	24.0%
Zynga	2.64	1.5%	-0.8%
Ubisoft	27.05	0.3%	78.3%
Gree	581	-0.9%	-19.8%
Changyou	23.63	4.8%	-13.6%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63 억	삼성에스디에	-17 억
게임빌	26 억	선데이토즈	-5 억
엔씨소프트	18 억	신세계 I&C	-3 억
한글과컴퓨터	17 억	네오위즈게임	-3 억
카카오	17 억	이상네트웍스	-2 억
더존비즈온	15 억	윈스	-2 억
아프리카TV	13 억	액토즈소프트	-1 억
SK	12 억	골프존	-1 억
KG이니시스	10 억	아이크래프트	-1 억
다우기술	8 억	KG모빌리언	-1 억
한국사이버결	8 억	케이사인	-1 억
컴투스	4 억	아시아경제	0 억
MDS테크	3 억	엑셈	0 억
NHN엔터	3 억	유비벨록스	0 억
민앤지	3 억	크레듀	0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3,700	0.3%	0.0%	-7 억	2 억
더존비즈온	20,400	6.8%	119.4%	0 억	15 억
한글과컴퓨터	24,400	8.2%	20.8%	5 억	17 억
골프존	85,200	-1.3%	237.4%	1 억	-1 억
안랩	49,050	6.7%	36.3%	-30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0,950	3.8%	215.1%	-6 억	0 억
슈프리카	16,300	0.0%	-36.0%	-	-
갤럭시아컴즈	4,835	5.3%	78.4%	0 억	-
지트리비엔티	12,650	-1.6%	266.7%	0 억	1 억
MDS테크	24,350	1.2%	17.6%	0 억	3 억
오상자이엘	9,570	-0.3%	-28.0%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9,180	1.3%	26.8%	0 억	-
케이사인	2,940	1.7%	19.5%	0 억	-1 억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4.13	-2.8%	16.5%
Oracle	36.35	-1.6%	-19.2%
SAP	78.12	-0.4%	12.2%
EMC	25.35	-0.9%	-14.8%
Salesforce	77.03	-1.8%	29.9%
Adobe	91.31	-3.1%	25.6%
Vmware	56.86	-0.4%	-31.1%
Intuit	95.57	-2.4%	3.7%
Symantec	20.21	0.2%	-21.2%
CA	28.22	-1.0%	-7.3%
Citrix	74.71	-3.8%	17.1%
Autodesk	59.52	-2.0%	-0.9%
Synopsys	44.77	-1.0%	3.0%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5년째 10대 기술에 포함된 사물인터넷, 내년엔 정말 뜰까

올해도 사물인터넷(IoT)이 가트너의 10대 전략기술에 포함됐다. 2012년 10대 전략기술에 포함되며 위세를 과시한 사물인터넷이 내년에는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가트너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 10대 전략 기술 동향'을 발표했다. 가트너가 선정한 내년도 10대 전략 기술의 골자는 크게 디지털 메시(The Digital Mesh), 똑똑한 기계(The Smart Machine), 새로운 IT 세상(The New IT reality)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세 영역 모두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트너는 내년에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우선 '디지털 메시' 영역에 세부 키워드로 디바이스 메시(Device Mesh)와 앰비언트 사용자경험(Ambient UX), 3D프린팅 재료가 포함됐다. 연결되는 기기의 종류와 연결의 확대, 일관된 사용자경험 등이 핵심이다. 3D프린팅 재료의 경우 1개 소재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연결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 예측이다.

최윤석 가트너코리아 상무는 "개별 기기에 관심이 모아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기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될 것(Device Mesh)"이라며 "기기에서 서비스까지 연결된 환경으로 사용자들은 연속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좋은 기능보다는 쓰기가 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한 기능보다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상 연결된 경험이 가능케 될 것(Ambient UX)"이라고 강조했다.

'똑똑한 기계' 영역은 최근 IT업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머신러닝'을 바닥에 깔고 있다. 기계를 사람처럼 학습시켜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영역에는 만물정보(Information of Everythings), 진화된 머신러닝(Advanced Machine Learning), 자동화 에이전트와 기기(Autonomous Agents and Things) 등이 포함됐다. 최 상무는 "각종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내년에 답이 나올 수 있다"며 "점차 방해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술도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신러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가트너는 내다봤다. 이른바 딥러닝이다. 인간의 신경망을 모태로 한 데이터 처리방식인 딥러닝이 기계에 적용돼 사람의 수준만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된다는 예측이다. 자동화 에이전트와 기기는 현재도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다. 애플 시리(Siri)나 구글 나우가 대표적이다.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게 된다. 가령 안면이나 목소리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진대거나 사용자의 생활리듬에 따라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새로운 IT 세상(The New IT reality)'는 앞서 사물인터넷과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 등이 접목된 아키텍처의 등장을 꼽고 있다. 상황에 따라 선제대응할 수 있는 보안 아키텍처, 디지털 메시와 진화된 머신러닝을 위한 뉴로모픽 아키텍처, 다양한 앱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는 메시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 등이 내년 IT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가트너는 내다봤다. 가트너는 끝으로 이모든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트너는 수년째 사물인터넷을 강조해왔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는 내년에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	1.9%	최근이슈

News & Issue

SK C&C 인사·조직개편, ICT R&D센터 신설 "新사업 성과 본격화"

SK주식회사 C&C는 16일 CEO 직속으로 ICT R&D센터를 신설하고 핵심 솔루션 개발 등 기술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SK C&C는 "클라우드·스마트 팩토리·융합물류 등 신성장 사업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고 솔루션·플랫폼 등 기술 중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ICT R&D 센터는 급변하는 사업과 기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IT·ICT 핵심기술을 솔루션화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인공지능(AI) 등을 발굴·준비하는 CTO조직이다.

IT서비스사업의 경우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신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융합물류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본부 조직을 신설했다. 또 금융·제조·통신서비스 등 산업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수주(SI)중심에서 솔루션·플랫폼 등 기술 중심 사업 조직으로 확대·재편했다.

SK C&C는 기술 기반 성장을 본격 실행하기 위해 국내 ICT 기술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현재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ICT기술전략담당을 맡고 있는 이호수 사장을 전격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호수 사장은 IT서비스사업장과 ICT R&D센터장을 겸임하며 신성장 사업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물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준비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 밖에 CEO직속의 현장경영실을 신설, 자율책임경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문화부문을 신설해 ICT 역량을 축적하고 창의·혁신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DA 300

임원인사에서는 서비스사업부문에 김학열, 기업문화부문에 문연희 상무가 전무 승진을 했으며, IT서비스기술담당에 김은경, 사업개발본부장에 노종원, 기획본부장에 윤풍영, PR담당에 이준호를 신규 선임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한글과컴퓨터	8.2%	최근이슈

한컴, 1월 중국에 웹오피스 출시, 킹소프트와 협력

한글과컴퓨터가 내년 1월 중국 시장에 자사 웹오피스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컴은 중국 오피스 SW 업체인 킹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웹오피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컴과 킹소프트는 17일 중국 북경 광저우호텔에서 한?중 SW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미아오 웨이(Miao Wei) 중국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컴과 킹소프트는 지난 8월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합의했고 이후 활발한 기술 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킹소프트는 한컴 문서변환솔루션(HDCS: Hancome document Conversion Solution)을 중국시장에 적용하고 한컴은 킹소프트 온라인 문서 서식 제공 서비스인 도커(Docer)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양사는 한컴이 준비 중인 글로벌 오피스 출시와 해외 공략 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홍구 한컴 대표는 "한국과 중국은 자국어 오피스SW로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왔다"며 "킹소프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SW파트너이자 글로벌 시장 공략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교류가 예정된 기업으로, 향후 양사의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업무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더존비즈온	6.8%	최근이슈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구현, 하이브리드 방식이 현실적"

"하이브리드 방식이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클라우드 구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클라우드협회와 디지털데일리가 15일 공동 주최한 '클라우드 임팩트 2015'세미나에서 더존비즈온의 송호철 이사는 '공공 클라우드 적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송 이사는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별 장점만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IDC 시장전망 자료를 근거로, 오는 2016년까지 IT조직의 65% 이상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송 이사는 이어 공공 및 민간기업은 클라우드 도입에 앞서 클라우드 전환비용(Switching Cost), 즉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특화된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사용자들의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레거시(Legacy)시스템과의 연계, 주기적인 관리비용의 발생, 모든 업무환경에 대한 일관된 보안정책 적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가 먼저 폭넓게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IaaS의 영역과 웹서버, WAS, DB, OS 등 PaaS의 영역, 응용프로그램을 제공받는 SaaS의 영역에 대한 유연한 구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디바이스 중심의 IT플랫폼에서 사용자 중심의 IT플랫폼으로의 진화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장점을 설명했다. 업무 애플리케이션의 분류, 네트워크의 구성,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빌딩블록,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등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송 이사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 등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 기업이 내부에 구축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한 활용폭은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이같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구현을 위해 현재 '더존 SKY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SKY 플랫폼에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외에 외부 참여자를 통한 콘텐츠 추가가 가능하고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이와함께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SKY플랫폼과 연계하면 전자계산서, 가계부, 그룹웨어, 백업, 웹 ERP, 전자결제 등 저비용 고효율로 다양하게 업무 확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21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2월 2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2월 2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